

# 축산업계의 원들러 리스트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우리는 지금 20C말에서 21C초를 살고 있다. 아직 21C가 오지는 않았지만, 소비에트연방의 붕괴로 이미 21C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1C를 국제화시대 또는 개방화시대로 부른다. UR 타결 후에는 WTO시대로도 불리운다.

이러한 변화를 한 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세기를 맞는 100년 전의 동학혁명, 조선조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세기의 변화에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고대, 중세, 근대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전환기로 보기도 한다.

UR로 모든 협상이 끝나고 이제 공산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GR(그린라운드), BR(블루라운드), TR(기술라운드), CR(경쟁라운드) 등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NAFTA에 가입을 하느니 아니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기로 이미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내용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어 개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 세기 전 쇄국정책의 공과나, 강압에 의해서 제물포항을 개방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난방시설만 잘 되었으면 아무 걱정이 없으며, 아무리 무더운 더위가 온다 해도 냉방시설만 잘 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냉난방 시설을 하기도 전

에, 그나마 한 것도 부실공사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한이나 혹서가 밀어 닥치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준비가 없으면 쇄국정책이나 개방정책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한 시대가 바뀌는 15C말에서 16C초에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서양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사회질서를 형성했던 교황과 황제의 힘이 약해지고 신흥계층이 경제적 힘을 얻어 등장하게 된다.

교황청의 권위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거대한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나 결국 이것이 교황청의 붕괴를 알리는 초석이 되고 만다. 준비 없이, 힘도 없이 시작한 건축은 부족한 돈을 만들기 위해 면죄부를 팔아야 했고 종교개혁으로 이어진다.

한 세기전 대원군도 기울어져 가는 왕권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 경복궁을 건축하나 부족한 돈을 만들기 위해 400년전 베드로 성전 건축에서 사용한 신평 면죄부를 팔아야 했고, 이것이 조세저항으로 이어져 왕조의 몰락을 가져온 역사를 바라본다.

무너져 가는 교황청이나 왕조를 유지하려는 재원 마련을 위한 무리한 조세정책은 그 도를 지

66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농민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분노처리 규제강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돼지고기 대량 수입 등이 양돈을 함으로써 인명도 재산도  
지키려는 노력보다 양돈을 안함으로써 재산을  
지키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99

나쳐서는 안된다는 교훈이었다.

UR만 타결되면 공산품의 수출이 잘 되어 국가적으로 큰 소득이 있을 것이란 예측은 GR, BR, TR, CR로 반감되어 가고 있다. 오히려 국민보건을 위해 국내법에 의해 130만불 상당의 냉동소시지 37개 컨테이너가 통관에 묶여 미국이 GATT에 제소하는 등 개방압력만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경기의 규칙을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면 경기는 해보나 마나이다. 재판이란 돈 많고, 힘 있고, 많이 배우고, 경험있는 사람이 이기게 마련이다. 우리는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 저격범이 무죄로 판결되는 것을 보고 미국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리가 통하는구나 생각한 적이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개방화시대에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양돈의 경우 5,000명을 전업농가로 살려내겠다는 한국판 선들러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가는데, 선들러의 노력으로 몇백 명의 생명을 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선들러도 마지막 자동차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팔았더라면 몇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탄식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리는 리스트보다는 조계종의 서의현 리스트, 가락동시장의 바나나 장학생 리스트, 상무대 리스트 등 죽이는 리스트에 익숙해져 5천명의 전업농 리스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쓰러져 가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양축농가를 생각하게 된다.

개방화시대, 다른 말로 바꾸면 경제전쟁시대를 이미 맞이하고 있다. 전쟁은 인명과 재산이 날라가 버린다. 흑사병은 인명은 날라가지만 재산은 남는다. 이번 전쟁이 재산은 날라가고 인명만 남을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축산은 양계에서 양돈으로 발전되어 왔다. 최근 초창기 축산업계를 이끌었던 대규모 양계농장의 잇단 부도는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그들은 선들러리스트에 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거목이 쓰러지는데 정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보았다.

요즘 농장을 매각하려고 내놓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인명도, 재산도 살려보려는 노력임을 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농민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분노처리 규제강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돼지고기 대량 수입 등이 양돈을 함으로써 인명도 재산도 지키려는 노력보다 양돈을 안함으로써 재산을 지키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하여 개방의 파고를 견디는 준비와 선들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농부**